

**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금부처는 통방도를 건너지 못하고, 나루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하고, 진공부처는 불을 건너지 못한다. 장부처는 안이 얇아 있다.

- 조주 불심 -

#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년 불교미술전시관

신앙미술의 모든 것, 특별 상설전시관입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홍사 불도대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불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찰이다. 가상공간에서 불교를 만나고자 하는 네티즌들 역시 사찰 홈페이지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사찰 홈페이지는 사이버 포교의 기본 토대가 된다. 도심 포교를 위해 포교당을 개원하듯 사이버 포교를 위해서는 사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 대응전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을 찾고 단정하는 불사도 중요하지만 정보통신시대에 으뜸불사는 사찰 홈페이지 개설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사찰 홈페이지는 역사, 문화재를 담은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편과 편의시설 소개도 결집된 살아있는 불교정보 도량미 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법회 등을 동영상화해 언제 어디서든 클릭 한번으로 타종소리를 듣고 큰스님 법문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한다.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시판과 방명록을 활용하고 대화방도 개설해 주지스님과의 대화시간을 마련하는 등 신형상담의 장으로 드러나고 싶어한다. 이에 더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바른 현대인들을 위한 인터넷 법회도 볼 수 있도록 하자.

불자들이 소극적이어서 불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보일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불자가 아니어도 사찰에 관심이 있다면 관심사가 탕화건 스님이건 언제든 가까운 마음으로 홈페이지에 들렀다 갈 수 있다. 비불자가 왔다가 불교에 호의를 품고 간다면 포교의 한걸음은 이미 내디딘 것이다.

현재 조계종의 경우 달마넷에 홈페이지 등록을 한 사찰은 모두 350여 곳, 사찰 소개와 사찰 사진 및 장, 교통안내 등이 전부인 곳이 아직까지 많다.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지만 하고 자료를 올리지 않다면 이것은 피력한 사찰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이를 위해 사찰마다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담당자가 한 명씩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찰은 상호교류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거듭나고 홈페이지가 없는 사찰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포교에 문을 열어 야 한다. <관련기사 5면>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인문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 포교사 해외파송 '열세'

불교 105명뿐...개신교 6898명·천주교 568명

**문화부 인터넷발표**

해외에서 활동중인 포교사는 조계종 진각종 등 종단과 단체 16곳에서 파견한 105명으로, 개신교 136개 단체 6,898명, 천주교 568명, 원불교 230명과 비교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관광부가 1월 13일 인터넷 자료실에 발표한 해외포교사 파송현황에서 밝혀졌다.

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국인스님과 선교사, 해외파견 선·포교사에 대한 지원프로그램과 지원단체 선정기준안을 만들고 있지만 교계의 해외포교 파송대박은 전무한 실정이다. 조계종에서 95년부터 배출한 국제포교사도 68명에 불과하며 해외파송보다는 영문관 한국불교 포교사로 발간준비와 연수및 교육, 국내 주요

파견하고, 유학생들도 해외포교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대학생봉사자를 활용해야 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원들과 동국대 불교학부 학생들을 포교사로 선발하여 1년간 파견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특히 해외포교승이나 포교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2~3개월 과정의 해외포교교육원을 설립하여 해외포교방법과 현지 종교제도및 현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 '온겨레 손잡고' 기자회견을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강원용 목사 등 종교계 지도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이 운동의 원만함을 기원했다.

**사회문제 대응**

**자문기구 구성키로**

**종단협 이사회**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1월 26일 불기 2544년도 1차 이사회를 열어 정기총회에 제출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자문위원회 구성과 전문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제교류·남북불교교류·환경보존·소비자보호·인권 등 5개 위원회에 2천5백만원을 조 사 및 연구비로 책정, 지원키로 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현대사회의 대응하는 불교의 역할을 모색키로 했다.

또 무분별한 종단 난립과 무자격 승려의 양산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승단발전연구위원회의 구성, 한·중·일 학술 세미나 및 수행체험단 상호방문 등의 사업계획을 오는 3월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온겨레 손잡고 화해-평화 기원

"3·1절 150만명 인간띠 만든다"

종교-시민단체 앞장...해외동포도 동참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교단체와 2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온겨레 손잡고 운동본부'의 상임공동본부장 정대스님(조계종총무원장)은 1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념계층 지역 종교간 장벽을 허물고 화해와 평화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온겨레 손잡고는 3월 1일 오후 3시 관문집·서울·수원·대전을 잇는 '평화의 휴먼라인', 목포·광주·전주·대전·대구·부산으로 이어지는 '화해의 휴먼라인'을 형성하며, 850km 구간을 150만명이 참가해 인(人)을형상화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종교지도자 333인의 평화선언문

**전통사찰 보호 조례제정 요청**

**조계종, 지자체에**

조계종총무원인 전통사찰 주변을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전통사찰보존법(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개정된 정사법은 1월 12일자로 공포되어 4월 13일부터 시행되며, 전사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계종은 특히 자치단체 조례 제정시 △전통사찰 건조물 및 문화재 유지·관리 △전통사찰의 수형·포교환경 정비 방안 △건축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전통사찰 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차단 방지 등의 기본원칙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또 교구본·말사에도 공문을 보내 조례가 시급히 제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협조·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정성운 기자

**"전통사찰 농지취득 허용"**

**농림부, 조계종에 알려**

그동안 농림부 농지과의 반대로 어려웠던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이 가능해졌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1월 25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해 "조계종의 청원에 따라 농지취득 인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5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청계사 동학사 실상사 위봉사에서 신청한 2만8천여평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취득신청한 농지 가운데 임야화되었

거나 주차장 등으로 전용한 농지에 대해서는 해당사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조성비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승려의 수행과 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해 전통사찰에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으나, 농림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워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사실상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불국사 백양사 선운사 법흥사에서도 농지취득을 신청해놓고 있다.

정성운 기자

**종교계 환경정책실천협 발족**

**불교등 7대종교 참여**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등 7개교단을 대표한 인사 14명은 28일 환경부 회의실에서 '종교단체환경정책실천협의회' 창립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의 초대 위원장(임기 2년)은 정연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환경정책실천협의회는 앞으로 신도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집중홍보·교육하는 한편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교회 부설 기도원과 산사 주변의 환경정화 등 다양한 관련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환경문제를 관련, 범종교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당국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실현 가능한 정책제안을 하기로 했다.

지난 1월8일 환경부 훈령(제 448호)으로 제정된 '종교단체정책실천협의회' 규정에 의거해 발족된 협의회는 지난해 10월26일 김명자 환경부 장관 초청 종교계지도자 간담회에서 발족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와 실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정례적인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구성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일출조계종 문화부장관 양산 사회부장 스님 등 각 종교 대표14인을 위원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재경 기자

**경주 남산 벌목으로 훼손** 2면

**승복이 잿빛인 까닭** 11면

맑은 물, 깨끗한 자연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